

중국의 비공식경제론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

장호준 |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이 논문은 중국에서의 비공식부문/경제에 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공식경제 담론의 확대재생산이 지니는 사회정치적 함의를 탐색하고 있다. 먼저 이 글은 비공식경제에 관한 중국 내에서 다른 입장들이 이론적 전거로 삼고 있는 서구학계의 다양한 비공식경제론을 그 단계적 발전과 분화 과정에 주목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사회경제적 실재로서의 비공식경제와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비공식경제를 방법론적으로 구별하고 양자가 중국 상황에서 어떻게 분리된 채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비공식경제 개념은 그 부정적인 정치적 함의로 인해 금기시되다가, 1996년 상하이 시정부가 실직 노동자들의 재취로 사업의 일환으로 비공식부문 취업을 장려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또한 중국 내 비공식경제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개념이 이론적인 도구를 넘어 급속한 경제자유화 시기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틀로 작용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2000년대 초반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비공식경제는 공식경제와 불법경제와의 대립적 병치를 통해 현대 중국경제의 주요 구성부분인 사영기업과 개체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주로 개념화되었다. 서구에서 수입된 이 학술적 개념은, 체제 전환기 중국 상황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개념화됨에 따라, 국가가 용인할 수 있는 경제 현상 및 관행과 용인할 수 없는 그것들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구별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범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주제어: 경제자유화, 비공식경제, 비공식부문, 비공식취업노동조직, 시장경제질서, 중국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HK사업단과 현대중국학회가 공동주최한 201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I. 머리말

1990년대 중국의 정치경제는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통제가 간접화되고 새로운 조절 기제인 시장의 원리가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도시 국유기업 개혁과 사영기업의 팽창이 정점에 달했던 ‘제9차 경제개발 5개년(1996~2000년; 이하 9-5)’ 기간 동안 특히 현저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남순강화 이후 일련의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흔히 ‘경제 자유화(economic liberalization)’로 요약되기도 한다(Yang, 2002; Demurger, 2006).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전환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자유화,” 즉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층 인민들의 노동 시장이 자유화되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국유 및 집체 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따라 상당수의 도시 노동자들이 실직(下崗) 상태에 처해졌으며, 농업 수익성의 악화와 향진기업의 부진 등으로 인해 수많은 농민공(农民工)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되었다. 이들은 자유화된 노동 시장에서 산업에 비군 저수지의 기능을 담당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며 도시 산업의 주변적 위치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발생한 중요한 사회경제적 현상 중의 하나는 국가의 규제가 미치지 않거나 느슨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경제 활동이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경제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절대 다수의 도시 실직자들과 농민공들이 호구 제도를 비롯한 기존 제도의 제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의 규제와 방임 또는 통제와 목인이 교차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사회경제적 요구를 해결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이다. 최근 일군의 중국 사회과학자들은 1990년대 중반 이래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을 이른바 ‘비공식부문(非正规部门 informal sector)’, ‘비공식경제(非正规经济 informal economy)’, 또는 ‘경제의 비공식화(非正规化 informalization)’ 등의 개념을

1. 이 글에서는 중국어 ‘非正规’를 ‘비정규’가 아닌 ‘비공식’이라는 단어로 옮기고자 하는데, 이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중국의 비공식경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²

그러나 경제 비공식성에 관한 중국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비공식취업/부문/경제 등의 용어들이 대중매체에 의해서도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떠한 사회 경제적 실재를 지칭하는지, 그리고 그 개념들이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 등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 오히려 각각의 논자들이 동일한 용어를 서로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정의하여 사용하는가 하면, ‘비공식’이라는 접두어를 추상 수준이 서로 다른 취업, 부문, 경제 등의 단어들과 임의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혼란은 한편으로는 비공식경제론에 내재되어 있는 이분법적 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서구학계에서 30여 년간의 논쟁을 거치면서 그 용법과 함의가 다변화된 비공식부문/경제 개념을 중국 내 사회과학자들이 2000년대 초반의 사회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중국 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용어들을 선별적으로 조합하여 재개념화하는 “중국 특색의” 학술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제론은 1970년대 이래 중남미와 아프리카 사회를 대상으로 영어권 학계에서 진행된 ‘informal sector/economy’에 관한 논의를 수입하여 중국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서구에서의 ‘informal sector/economy’에 관한 논의는 ‘비공식부문/경제’라는 번역어로 한국에 소개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다. 다음으로, ‘비정규’라는 한국어 단어는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연상시키기 때문에 개념의 외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은 영어의 ‘irregular/flexible work/employment’에 상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공식경제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로 이해된다.

2. 예를 들어, 후안강 등은 2000년대 중반 도시 비공식경제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이상이며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동력이라고 주장한다(胡鞍钢·赵黎, 2006). 또한 최근 황종즈(Philip Huang)는 중국의 경제 개혁을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은 비공식경제의 팽창과 지방 정부의 비공식적 관행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비공식경제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중국 정치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黄宗智, 2010; Huang, 2011).
3. 외국 및 중국 내에서의 비공식경제론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이 출간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尹晓颖·闫小培·薛德升(2010; 2007)을 참고.

이 글에서는 경제 비공식성에 관한 최근 중국 학계에서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공식경제 담론의 등장과 확대재생산이 중국의 사회경제적 자유화 과정의 맥락에서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공식경제’의 두 차원, 즉 사회경제적 실재로서의 비공식경제 현상과 담론적 실재로서의 비공식경제 개념을 방법론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논자들이 비공식경제라는 동일한 개념을 통해 지시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실체와 그 특성이 무척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중국의 사회과학계에서 1990년대 중반 이래의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비공식부문/경제 등의 개념틀로 재현하는 경향, 비공식경제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담론이 (재)생산되고 유포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에 천착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 경제의 비공식화 정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나 비공식경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기술보다는⁴ 중국 내 비공식경제론의 전개 양상과 논의 구도를 이론적 계보 관계에 주목하여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메타-이론적 시각에서 그 사회정치적 함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하 본문에서는 중국 내에서 경제 비공식성을 다루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접근법의 개념화 방식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 개념의 연원상, 경제 비공식성은 국가 관리와 규제의 부재(不在)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비공식경제에 관한 다수의 논자들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국가의 개입과 장려에 의해 형성, 발전되어 온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념화 경향을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유주의적 전환기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착목하여 이러한 개념화 경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제 비공식성에 관한 서구에서의 논의가 변천해온 과정을 검토할 것인데, 왜냐 하면 비공식경제/부문을 언급하는 중국의 모든 학자들이 제각각 서로 다른 서구의 논자들로부터 그 개념을 선택적으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비공식경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최근의 사례연구로는 북경 중관촌의 IT시장에서 성행하는 신용거래 방식을 분석한 장호준(2011)을 참고.

II. 서구 비공식경제론의 전개와 분화

1. ‘비공식부문’ 개념의 등장과 국제노동기구(ILO)

‘비공식경제/부문’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인류학자 하트(Keith Hart)가 1971년 아프리카의 도시 고용 문제를 다룬 학술회의에서 가나(Ghana) 도시 지역의 고용 현상의 특징을 개념화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1960년대 가나에서의 도시화 진전에 따라 도시 지역에서 급증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경제활동의 수입 창출 기능에 주목하면서, 자본주의적 임노동 관계에 편입되지 않은 경제 영역을 비공식부문이라고 칭하였다(Hart, 1973: 68). 하트는 그 영역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 경제활동들이 임노동 고용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공식부문으로부터 자율성을 지니고 있으며(Hart, 1973: 61) 그들 나름대로의 토착적인 자원 활용 방식을 통해 저발전 상태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Hart, 1973: 89).

하트의 주장과 비공식부문이라는 용어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책 개발가들에 의해 곧바로 수용되었다. ILO는 1960년대 제3세계 사회에서의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로 생겨난 도시 잉여노동력을 비공식부문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비공식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을 케냐 정부에 권고했다. ILO의 이 케냐보고서(1972) 발간을 계기로 비공식부문 개념이 세계적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ILO가 세계 각지에 네트워크를 확보한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라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보고서에서 비공식부문 개념이 비교적 명료하게 정식화되었기 때문이다. 수입의 원천에 따라 공식-비공식 부문을 구분했던 하트와 달리, ILO는 비(非)임노동 경제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곱 가지의 특성에 따라 비공식부문을 개념화했다.⁵ 이 정의는 향후 약 20

5. ILO에 따르면 비공식부문은 ① 시장 진입의 용이성, ② 토착 자원예의 의존, ③ 기업체의 가족 소유권, ④ 소규모 경영, ⑤ 노동집약적 방식과 제한된 기술, ⑥ 공식교

년 동안 ILO의 각종 고용 창출 프로그램과 다른 학자들의 비공식경제 개념화의 초석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1993년 1월 ILO 산하의 국제노동통계회의 15차 회의(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ICLS)를 거치면서 ILO의 비공식부문 개념에 약간의 변화가 생겨났다. 그 조직 업무의 특성상 비공식 부문에서의 고용 증진 효과와 정책 방향을 통계의 형태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ILO는 비공식부문을 통계적으로 양화하기에 용이하도록 비공식부문 개념을 경제활동 단위의 규모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했다. ICLS의 1993년 결정문에 따르면, 비공식 부문은 이제 어떤 경제활동의 특징이나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속성보다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활동 주체의 규모의 견지에서 일차적으로 개념화되는 것으로서, 가구 기업(household enterprises) 또는 복수의 가구들에 의해 소유되면서 법인화되지 않은 기업들(unicorporated enterprises)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ICLS, 1993: para 5-6). 이 두 형태는 다음 장에서 살펴 볼 중국의 비공식경제 조직형태들 — 전자는 ‘개체호(个体户; 자영업자)’, 그리고 후자는 ‘사영기업(私营企业)’ — 의 범주와 거의 일치한다.

2. 비공식경제 개념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19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저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비공식부문/경제의 사회정치적 함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겨났다. 페루의 경제학자 데 소토(Hernando de Soto)는 이후 비공식경제에 관한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의 저작 *The Other Path*에서 20세기 중반 이래 비공식 부문이 지속적으로 팽창해온 원인을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에서 찾고 있다(de Soto, 1989). 그에 따르면, 페루를 비롯한 대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은 특권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각종 복잡한 법률과 까다로운 관

육체계 외부에서 기술 습득, ⑦ 통제되지 않은 경쟁적 시장과 같은 특성에 의해 정의된다(1972: 6).

료제적 절차를 제정함으로써 인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범위를 제한해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부문의로의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진입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수많은 인민들은 법률의 테두리를 넘나드는 비공식적 경제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데 소토는 이러한 점에서 비공식경제를 인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기업가적 역동성”의 소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e Soto, 1989: v-ix).

데 소토를 위시한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비공식경제의 이러한 창조성과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비공식부문 자체가 경제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공식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공식부문의 진입하는 것 못지않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de Soto, 1989; 2001; Loayza, 1997). 따라서 제3세계 국가들이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공식부문에 축적되어 사장되어 있는 자본(dead capital)을 공식부문으로 전환함으로써 비공식부문을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 국가는 무엇보다도 비공식부문에 적체된 각종 부의 형태에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외의 경제활동 영역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de Soto, 2000; 2001).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은 물론 상당수의 비정부조직들(NGOs)에 의해 수용되어 지역경제 개발에 관한 정책 구상에 활용되어 오고 있다.⁶

3. (후기)구조주의적 관점과 경제비공식화론

198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할 무렵, 네오마르크스주의와 세계체제론의 전통에서 있는 일군의 학자들은 비공식경

6. <http://go.worldbank.org/KJOJ66DBW0>와 <http://www.wiego.org/> 등을 참고할 것.

제를 공식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동시에 일국의 국민경제 또는 세계 경제의 구성부분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에 의하면, 비공식경제는 구조주의적 원리에 따라 “(공식경제가) 아닌 것(what is not)”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개념화되며(Castells and Portes, 1989: 12), 일반적으로 “유사한 다른 경제활동들이 국가에 의해 규제되는 반면에, 국가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수입 창출 행위”로 정의된다(Castells and Portes, 1989: 8; Sassen, 1994: 2290). 이 정의에 따르면 공식경제와 비공식 경제는 이들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여부 또는 개입 정도에 따라 구별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또한 공간적인 경계 구분을 연상하게 하는 공식-비공식 ‘부문’이라는 용어보다도 경제활동의 특성을 지시하는 공식-비공식성(in/formality)이라는 용어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구조주의적 시각은 국가의 규제를 경제 공식-비공식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분석 단위를 전지구적 경제체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비공식경제에 대한 논의의 수준을 한층 제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1970년대 후반 이후 자본주의 국가의 다국적 기업들은 종종 국가의 묵인 하에 생산 비용, 특히 임금과 사회복지비용을 낮춤으로써 시장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했는데, 본국 및 제3세계 사회에서 이러한 자본의 유연적 축적 체계가 확장됨에 따라 비공식경제의 영역과 규모도 함께 팽창되었다(Portes *et al.*, 1989; Portes and Schauffler, 1993; Roberts, 1991). 이는 비공식경제가 국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는 데 소토의 견해와는 근본적으로 관점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들은 비공식경제를 국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작동, 팽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전지구적인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 양상과 성격이 비공식경제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Portes and Centeno, 2006).

비공식경제가 국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출현하고 성장하는 원인은 자본과 노동 축의 전략, 그리고 글로벌 도시의 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⁷ 아울러, 흔히 제3세계 사회 및 국제 이민 집단들과 결부되어 언급되던 비공식경제 현상은 이른바 주변부 국가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인력과 자본의 국제적 내왕이 빈번한 글로벌 도시에서 산업구조와 직종이 재편성되는 과정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구조주의적 시각을 계승하고 있는 비교적 최근의 논자들은 경제 비공식성의 증가 현상을 후기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재편되는 양상의 하나로 파악한다. 이러한 양상은 그 과정을 증시하는 경제비공식화(informalization)이라는 개념으로 더 적절하게 설명된다(Quijano, 2000; Sassen, 1998; 2001; Tabak and Crichlow, 2000). 이와 함께, 이들은 자본의 유연적 축적체계를 도모하는 이러한 경제 비공식화 과정이 필연적으로 노동 착취를 구조화하기 때문에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Portes, 1997; Portes and Centeno, 2006).

4. ‘비공식부문의 딜레마’와 ILO의 ‘버젓한 일(decent work)’

구조주의자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1980년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 비공식경제/부문이 급속하게 팽창함과 동시에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고 도시 빈곤 문제도 점점 더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비공식부문이 일시적으로 빈곤 문제의 완충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경제 발전과 함께 점진적으로 현대 산업 부문으로 편입되어 소멸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비공식부문을 통한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던 ILO의 기대와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ILO는 흔히 “비공식부문의 딜레마”라 불리는 모순적인 상황—

-
7. 이는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하청계약 및 외부 수주 방식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며(Castells and Portes, 1989: 300-306), 비공식경제에 종사하는 개별 노동자 및 자영업자들의 실제 가처분 소득이 공식경제에 종사하는 임노동자들보다 더 높고 또한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시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Roberts, 1991). 또한 글로벌한 도시들에서 고수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계층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대량생산체계의 의해 충족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세분화되는 수요체계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 주문 생산체제가 발전해 가는 과정 또한 비공식경제 팽창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Sassen, 1994; 1998; 2001).

즉, 고용과 수입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비공식부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지, 아니면 노동력 고용과 관련된 규제를 확대하여 비공식부문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향상과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각국의 정부 대표들과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한 ILO의 1991년 제78차 회의는, 비록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ILO가 비공식부문의 딜레마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비공식부문 정책에 관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ILO, 1991a; Bangasser and ILO, 2000).⁸

비공식부문의 발전을 통해 고용창출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ILO의 정책은 1999년까지 지속되었다. 비공식부문의 딜레마에 대한 수년간의 논의 끝에 ILO는 1999년 제87차 회의에서 기존의 입장에서부터 선회하여 비공식부문에서의 노동권 보호와 작업 여건 개선을 일차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ILO는 ‘버젓한 일(decent work)’이라는 제명의 사무총장보고서를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등하며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 하에서 남녀에게 버젓하고 생산적인(decent and productive) 일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천명하였다(ILO, 1999). 이후 이 ‘버젓한 일’은 현재까지도 ILO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가장 중심적인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⁹ 이와 함께 약 30년 동안 ILO 정책의 중심 개념이었던 비공식부문은 비공식경제 또는 비공식적 일(informal work) 등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¹⁰

-
8. 1991년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내려진 결론은 “편리하고 저비용의 방식으로 고용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부문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ILO, 1991b). ILO의 이러한 정책노선은 1996년 “상하이 모델”의 형식으로 중국 상황에도 적용되었는데, “상하이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9. ILO의 비공식부문/경제 정책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Bangasser(2000), ILO(2002)를, ‘버젓한 일’의 개념과 정책적 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ILO(2002)를 참고할 것.
 10. ILO의 목표가 노동권리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사회적으로 괜찮다고 판단되는 일자리 창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른바 ‘공식’부문에서의 노동 역시 ILO의 주요 관심사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행위의 공간적 분리와 구조적 분화를 전제하고 있는 부문(sector)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ILO의 정책 노선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5. 비공식경제 개념의 모호성과 유사한 개념들

현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비공식부문/경제에 대한 논의는 ILO의 다양한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계기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현대화론자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도시 지역에서의 이 새로운 생계 및 수입창출 방식은 ILO 이외에도 서로 다른 이념 및 지적 전통에 서있는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¹¹ 이에 따라 이러한 현상들은 비공식부문/경제라는 동일한 용어로 그러나 서로 다른 이론적 시각에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 개념화되고 설명되어 오고 있다. 실제로, 어떤 경제 행위/현상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 ILO와 같이 경제활동 방식의 사회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1993년 ILO의 정의와 같이 경제조직의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데 소토와 구조주의자들처럼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개념정교화 노력에 의해 경제 비공식성에 관한 논의가 한층 더 풍부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사한 경제 행위라 할지라도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그리고 각 사회의 통제 기준에 따라 그 공식-비공식성이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는 바, 이는 개념적용의 일관성과 비교문화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비공식경제의 합법성 문제까지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하트등은 비공식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 관료제적 관리와 통제에 있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합법성의 여부는 공식-비공식경제 구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Hart, 1973; 2005). 그런가 하면, 카스텔스와 포르티스는 경제 영역을 크게 공식, 비공식, 범죄(criminal) 경제로 구분하면서, 범죄 경제

11. 앞서 언급한 시각들 이외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폴라니(Polanyi)의 경제의 사회적 감입성(嵌入性; embeddedness)에 대한 통찰이나 콜만(Coleman), 퍼트남(Putnam) 등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비공식경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흐름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시각에 입각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생산되지 않았고 따라서 본 논문의 논지와 다소 거리가 있어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가 “사회적으로 불법적이라 규정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며 아울러 “공식-비공식의 구분은 최종 생산물의 성격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되고 교환되는 방식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Castells and Portes, 1989: 15, 이탤릭체는 필자). 이들의 구분과 유사하게 상당수의 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합법적 경제 행위를 형사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불법경제와 비공식경제로 구분하며, 비공식경제를 납세 및 노동 관련 법률과 같은 규제 규범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경제 행위로 간주한다(Sassen-Koob, 1989; Stepick, 1989; de Soto, 1989).¹² 또한 일부 학자들은 비합법성의 정도가 낮은 행위를 비공식경제로 포함하는 반면, ‘명백하게 범죄적인 행위’는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로 분류하기도 한다 (Losby et al., 2002, 이탤릭체는 필자).

이러한 연역적인 개념적 정교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공식경제 개념이 규제 방식과 법률적 기준이 서로 다른 국가들을 가로질러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공식-비공식의 구분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불법이라 규정되는’ 또는 ‘명백하게 범죄적인’ 경제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개별 국가의 법률체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그 개념을 경험적인 사례연구에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¹³ 이는 오늘날의 후기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생산 및 교환의 체계가 사람, 자본, 재화, 서비스 등의 국가 간 이동에 의해 지탱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된 무수한 개념들의 목록은 경제(비)공식성을 규정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12. 즉, 이들에 따르면 비공식경제는 법률적 기준으로 보면 불법적인 행위를 일부 포함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 행위가 형사상 위법 요건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비공식경제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하는 범죄경제 또는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형태에는 마약과 무기 밀매, 인신매매, 조직적 성매매 등이 포함된다.

13. 일례로, 무허가 복제 DVD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에서는 저작권 제품의 무단 생산, 판매 행위는 민사적으로 처리되지만, 중국에서는 현행법상 1,000장 이상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형사요건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미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포르노(pornography) DVD를 생산,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50장 이상을 생산 또는 100장 이상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형사적 처벌의 대상, 즉 범죄 행위로 분류된다.

III. 중국 내 비공식경제론의 도입과 세 가지 관점

1. 중국 비공식경제론의 전사(前史)

서구에서 활발히 논의되던 비공식부문/경제론은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 내 학자와 관료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informal sector/economy’에 해당하는 중국어 단어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¹⁵ 그러나 물론 이러한 사실이 그 개념으로 지시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현상이 실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중국에서 비공식부문/경제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사회경제적인 이유 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기인했던 것이다(李强·唐壮, 2002: 14-15; 彭希哲·姚宇, 2004: 64-65). 왜냐하면 절대적인 당-국가 기구가 대부분의 주요 경제 활동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계획경제체계 하에서는 비공식부문/경제와 같은 용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계획경제체계의 불완전성과 부작용은 물론 당-국가 관료주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공식부문/경제와 같은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 어떠한 개념

-
14.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을 배경으로 경제 비공식성과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유사 개념들을 사용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러시아와 동유럽의 구사회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second/parallel economy(Sampson, 1987; Stark, 1989)”, 선진국을 배경으로 해서는 “unreported economy(Feige, 1990)”, 법률적인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unofficial economy(Clark, 1988)”, 구조적 경향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informalization(Portes et al., 1989, Sassen, 1994; 1998; Tabak and Crichlow, 2000)”, 통계 작업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non-observed economy(UN, 2003)”, 그리고 그 이외에도 “hidden economy(Lacko, 2000)”, “underground economy(Feige, 1990; Feige and Ott, 1999)”, “shadow economy(Schneider and Enste, 2000; Fleming et al., 2000)” 등과 같은 개념들이 유사한 현상에 대해 그러나 서로 다른 배경의 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외연으로 사용되고 있다.
 15.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비공식부문/경제라는 용어가 중국에서 출판된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5년 러시아의 경제학자 Skrypnik의 논문(1994)이 중국어로 번역, 소개되면서다(H. B. 斯克雷普尼克, 1995).

화 방식을 따르든지 오늘날 사용되는 그 개념이 외연하는 사회경제적 현상은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중국에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경우 자류지(自留地)에서 수확한 곡물을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과 은밀하게 거래하거나 유량 행상에 생필품 구입을 의존하는 현상은 상당히 일반적이었다(Chan and Unger, 1982; Chan et al., 1992; Potter and Potter, 1990).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도시 인구의 완전 고용을 추구했던 당시 정책의 영향 하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많은 지방 정부와 대형 기관들이 공공연하게 불법적 노동 수출에 관여할 정도로 임시계약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보편적이었으며, 아울러 국가가 정한 생필품 가격과 실제 유통 가격의 괴리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무허가 흑색 시장이 성행하였다(Byrd, 1987; Zafanoli, 1985). 이러한 경제 관행들은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에서 생필품 부족과 관료제적 병목 현상을 야기한 계획경제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2차경제’ 또는 ‘평행경제’와(Sampson, 1987; Stark, 1989) 매우 유사한 기능을 담당했다. 이는 도시편향적인 이중 경제체제에 의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농촌 사회에는 특히 불가피했던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Putterman, 1992).

한편, 1976년 이후,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정치의식 개조와 도시 인구 분산 목적으로 추진된 상산하향(上山下乡) 캠페인에 의해 농촌과 산간벽지로 보내졌던 약 1,700만 명의 젊은이들이 도시 지역으로 속속 복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심각한 불완전 고용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더라도 1980년 도시 지역의 미취업 인구는 1,300만 이상에 달했다(Feng, 1998: 286). 지방정부의 하급기관들은 흔히 ‘다이예(待业)’로 불리는 미취업 상태에 처해 있던 이들이 취업과 생계 문제를 일시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점상과 인력거 운송 등 다양한 형태의 미등록/비인가 영업 행위에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Bruun, 1993; Jefferson and Rawski, 1992; Young 1995). 이와 함께 1981년 국무원은 개체호(个体经营户)라는 경제활동 주체 범주를 도입하여 소규모 자영업체들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¹⁶ 1987년에는 사영기업의 경제 주체 범주를 승인하는 등, 국유 및 집체소유 이외의 기업체들의 성장을 도모하였다.¹⁷ 이에 따라 영

업장소가 고정된 형태의 자영업과 소규모 기업 활동은 물론 비고정 영업방식의 무허가 경제 행위 역시 대부분의 도시 전역에서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영어권의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비공식부문/경제 개념으로 기술하고 설명하기 시작했다(Chan and Unger, 1982; Whyte and Parish, 1984). 후속세대 중국 전문가들 역시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서 국가의 사회경제적 규제와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제3차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이나(Davin, 1999: 150-154; Qian, 1996) 관시(关系)와 같은 사회문화적 자원이 새로운 경제 활동 기회를 창출하는 데 활용되는 양상을(Yang, M., 1994: Chapter 5) 비공식부문/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1990년대 중반 호구제도의 완화와 사영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동시에 진행된 농민공들의 대도시 진입 현상을 비공식부문/경제의 가시적인 팽창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하기도 했다(Solinger, 1999: passim; Zhang, 2001: passim). 영어권 중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한 구조주의적 관점과 유사하게, 국가 규제 영역의 외부에서 또는 규제 범위의 가장자리에 걸쳐 있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느슨한 개념으로 사용해왔다. 한편, 2000년대 초반 이전에 중국 내 학자들이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한 경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비공식경제론의 도입: 상하이 모델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비공식부문/경제 개념이 학계와 사회의 관심을 끌

16. 「工商行政管理总局汇报提纲」 1981년 6월 27일.

17. 1978년 전국적으로 약 8만 개에 불과했던 소규모 민영 기업의 숫자는 1988년 말에는 3,000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며 각종 경제조직 형태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법률적 지위를 확보한 사영기업 등에 의한 민간 경제의 GDP 구성 비율은 1980년 0.2%에서 1991년 36.5%로 급격하게 증가했다(Wank, 1999: 9).

게 된 계기는 1996년 상하이 시정부가 국유기업 실직(下崗)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사업을 실시하면서부터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국유기업 개혁에 의해 1995~1999년 기간 중 전국적으로 1,500만 명에 달하는 국유기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劳动和社会保障部, 2001: 23). 실직 노동자들이 개체호 및 사영기업 부문에 재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한계에 직면한¹⁸ 상하이 시 재취업공정영도소조는 1996년 ILO와의 연합 심포지움을 계기로 ILO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그 해 9월 실직노동자의 비공식부문취업 장려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¹⁹ 영도소조는 후속적인 정책 문건을 하달하여²⁰ 실직 노동자들이 공상국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비공식취업노동조직(非正规就业劳动组织)’라는 범주의 경제활동조직을 소규모 단위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²¹ 시 노동국 등 관련 부서는 비공식취업노동조직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기회 제공, 금융권 용자 알선, 보증기관 알선, 지방세 면제, 사회 보험 가입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였는데,²² 이는 이 조직들을 궁극적으로는 공상국에 등록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자생력을 가진 경제조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였다.

1996년 9월부터 시작된 이 비공식조직 설립 지원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²³ 흔히 ‘상하이 모델(上海模式)’로 불리는 이 재취업 사업을 통해 2001년 9월까지 5년 동안 약 1만1천 개의 비공식취업노

18. 상하이 시는 하강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였는데, 9-5 기간 동안 약 110만 명의 국유기업 노동자들이 실직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尹继佐, 2001: 6).

19. 「关于实施再就业工程试点工作的若干政策的通知」沪府办发[1996]66号.

20. 「关于鼓励下岗人员从事非正规就业的若干试行意见」沪再就业办[1996]5号; 「非正规就业劳动组织认定管理试行办法」沪再就业办[97]第11号.

21. 비공식취업노동조직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업활동 항목은 가전가구 수리, 복장수리, 환경미화, 배송, 요식, 가사파출, 보안 등 대부분 지역사회(社区) 생활에서의 편의와 관련된 업종들이거나 소규모 가내제조업종이다.

22. 이 조직의 자격은 연(年)단위로 최대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영도소조 하의 관련 부서는 매년 이 조직들의 활동 내역을 감사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은 물론 그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 沪再就业办[97]第11号 참조.

23. 이에 대한 ILO의 평가에 대해서는 Howell(2002), 상하이 시 노동보장국과 언론계의 평가에 대해서는 각각 祝均一(2004), 吴复民·姜微(2001) 등을 참고할 것.

동조직이 설립되어 약 15만 5천 명이 재취업하였으며(Howell, 2002: 10), 2005년 말까지는 약 36만 명의 인원이 약 3만4천 개의 조직에 재취업하게 되었다(任远, 2008: 120). 이러한 성과에 고무된 상하이 시는 2006년 시인민 대표대회에서의 의결을 거쳐 이에 관한 지방법을 입법함으로써 비공식취업 노동조직의 설립 지원 정책을 더욱 공식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상하이 모델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는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타위위안 시와 길림성의 일부 도시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상하이 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실직노동자 재취업 사업을 기획, 시행해오고 있다.

상하이 모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비공식취업노동조직은 공상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개체호나 사영기업과는 확실히 다른 성격의 경제 조직이다. 시정부가 이를 개체호 및 사영기업의 범주와 구별하여 ‘비공식’ 조직으로 명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자본 및 고용 규모가 영세하여 그 지위가 현행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조직 구성 발상이 ILO의 비공식부문 개념을 적용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 장에서 소개한 1990년대 전반 ILO의 입장— 즉 ‘비공식부문의 딜레마’에 직면하여 노동 조건이나 권리보다는 고용창출이 우선적인 목표임을 재확인했던 1991년의 결정과 경제 조직의 규모를 중시하기 시작한 ICLS의 1993년 결의 사항 등—은 경제자유화를 거시경제적인 당면 과제로 설정한 1990년대 중반 중앙 지도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상충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와 ILO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편승함으로써 상하이 시정부가 비공식부문/취업 개념을 차용하여 날로 심각해지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할 수 있었던 사회정치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상하이 시의 비공식부문취업 정책은 중국 비공식경제론의 특징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하다. 먼저,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언급조차 금기시 되던 비공식취업/부문/경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비공식부문/경제에 관한 논의가 확연하게 증가하게 된 시점은 상하이 모델 시행 1단계가 종료된 2001년을 전후해서이며, 초창기의 논의는 대부분 상하이 모델의 평가와 비공식취업 정

책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기시되어 왔던 용어를 정부 기관이 정책적으로 적용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그 용어와 개념들이 사회정치적으로 승인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张彦, 2008). 다음으로는, 비공식부문/취업 등의 용어를 최초로 도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주체가 공적인 기관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기관이 지극히 관료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비공식’ 취로 사업을 기획, 관리,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소 모순적인 개념 적용 상황과 중국 특유의 지식 재생산 과정 때문에 중국의 비공식경제론에서의 ‘비공식’ 개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물론 그 논의의 배경과 구도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와 별도의 비판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3. 비공식경제론의 분화

상하이 시의 재취업 사업을 계기로 촉발된 비공식취업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 중국 내 사회과학계에 수렴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편으로는 비공식경제에 관한 ILO 이외의 서구학계의 다양한 이론들이 소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9-5 기간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 내용이 논의에 반영됨에 따라 비공식경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시각이 다변화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이래 현재까지 중국 내 학계에서 공식-비공식이라는 틀에 의해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관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1990년대 ILO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상하이 모델을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고용기회 창출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관점, (2) 역시 ILO, 특히 1993년 ICLS의 입장에 기반하여 경제 조직의 규모를 중심으로 경제 비공식화 과정을 설명하는 관점, (3) 경제 조직과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및 보호를 중심으로 비공식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관점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세 가지 관점을 각각 고용 중심적 접근, 규모 중심적 접근, 규제 중심적 접근이라 칭하고 각각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²⁴

(1) 고용 중심적 접근

이 접근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비공식성의 문제를 재취업 또는 고용창출이라는 목표 하에서 실용적인 관점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일군의 학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앞서 언급한 상하이 모델의 실시 및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중심으로 비공식부문에 관한 논의를 확산시켜나가고 있다.²⁵ 이들에게 있어서 비공식부문은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중국의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 공식적인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법률적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단체들의 경제활동 영역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공식-비공식부문의 경계는 상대적으로 명확하며 비공식 경제조직들 역시 일정한 규모로 성장한 후에는 공상국에의 등록 절차를 거쳐 공식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비공식부문에서의 취업, 또는 비공식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각종 지역사회 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 실제로 상하이 모델은 정부가 고용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의 하나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그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실행 비용이 높게 든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재취업자들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오히려 자생력을 저하시킨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곤 한다(任远, 2008; 刘学平·刘丹, 2006). 비공식(非正规)이라는 용어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함의 때문에 최근 일부 관료들은 ‘유연적(灵活)’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陈荣林, 2006). 이들이 말하는 비공식성이 국가에 의해 관료제적인 방식으로 창출되고 규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비공식적’이라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24. 이론적 논의와 사례 연구 이외에, 비공식경제 규모의 측정과 양화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도 양산되고 있다. 논점과 방법론이 명료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또 다른 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대다수의 연구들이 ICLS 또는 UN(2004)의 양화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규모 중심적 접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밖에, 각 지방의 노동사회보장국 관료들과 공회(工会) 관련자들이 ILO의 ‘버젓한 일(decent work; 体面工作)’의 개념을 소개하고 중국의 노동 조건을 조망하는 짧은 글들이 출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25. 丁金宏 외(2001), 李振峰(2007), 刘社建(2007), 刘学平·刘丹(2006), 任远(2008), 宋秀坤·黄杨飞(2001) 등을 참고할 것. 앞 절에서 상하이 모델에 대해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한 부연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다.

(2) 규모 중심적 접근

2000년대 초반 중국의 경제학자이자 대표적인 관방학자인 후안강(胡鞍钢)을 필두로 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비공식부문/경제에 대한 논의를 재취업/고용의 문제를 넘어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²⁶ 이들은, 고용 중심적 시각과는 달리, 비공식취업노동조직과 같은 경제 조직을 비공식취업 현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범주로 간주하며, 비공식취업을 비공식부문에서 일어나는 취업 형태의 하나로 규정한다. 따라서 후안강 등의 일차적인 관심은 경제활동 주체 단위를 기준으로 범주화되는 비공식부문에 관한 것이다.

이들 역시 고용 중심적 비공식경제론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ILO의 개념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ICLS의 1993년 정의에서 언급된 바 있는 가구 기업(household enterprises)과 비법인 기업(unincorporated enterprises) 형태 등 소규모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들과 개별 노동력 형태 등이 비공식부문을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와 동시에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의 속성에 대해서는 1972년 케냐보고서에서 열거한 7가지 특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후안강 등은 ILO의 이러한 개념화 방식을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변용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중국의 비공식부문은 크게 개체호, 사영기업, 농민공 등의 개별 노동력으로 구성된다(胡鞍钢·杨韵新, 2001: 69-70). 이와 함께, 이 비공식부문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비공식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들에 따르면 비공식경제는 (개체호 등에 의한) 개체경제, (사영기업에 의한) 사영경제, (농민공 및 하강노동자 등 개별 노동 주체에 의한) 미통계경제로 구성된다(胡鞍钢·赵黎, 2006: 114).²⁷

비공식부문/경제의 범주를 이렇게 개체호와 사영기업 등을 포함하여 규정 한 후, 이들은 중국의 비공식부문/경제를 기존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

26. Hu(2001), 胡鞍钢·杨韵新(2001), 彭希哲·姚宇(2004), 胡鞍钢·赵黎(2006), 李桂铭(2006), 姚宇(2007) 王永兴·景维民(2010), 黄宗智(2010) 등이 대표적이다.

27. 이러한 구분법에 따르면, 공식부문/경제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외자기업 등의 영역에 한정된다.

서 새롭게 해석한다. 이들에 따르면, 1952년 이래 중국의 비공식경제 규모는 1958년을 기점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급격하게 축소된 채로 지속되다가 1984년 무렵부터 점진적으로 팽창하여 1992년 남순강화 직후에는 그 팽창이 가속화되어 9-5기간 중에 가장 가파른 팽창률을 보이는, 즉 U자 형태의 변화 양상을 띠고 있다.²⁸ 또한, 사영기업까지를 포괄하는 비공식부문은 중국 내 고용구조는 물론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도시 비공식부문 취업인구가 도시 전체취업인구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8년 0.17%에서 1990년 17.5%, 1995년 19.69%를 거쳐 2004년에는 58.69%까지 증가하였으며(胡鞍钢·赵黎, 2006: 113), 도시 비공식경제가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90년에는 9.5%, 1996년에는 15.2%, 그리고 2004년에는 34.2%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胡鞍钢·赵黎, 2006: 115).

이러한 설명 틀 하에서 비공식(非正规)부문/경제는, 앞서 살펴본 고용 중심적 관점에서의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인, 즉 개혁개방 이래 도시 지역에서의 고용 창출은 물론 중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온 핵심적 요소로 간주된다.²⁹ 후안강 등은 이렇게 비공식경제가 성장하고 중국 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은 두 가지 기제가 상호보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 하나는 (데 소토의 “창조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과 유사하게) 도시로 이주한 수많은 농민공들을 비롯한 비공식부문 종사자들이 생존과 생계 영위를 위해 자발적인 유인 기제를 창출하고자 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비공식경제가 (즉, 사영기업, 개체호, 개별 노동 형태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장려를 통해 정책적 유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비공식경제에서 ‘비공식’은 경제활동 조직의 법적

28. 이러한 설명에서는, 비공식부문/경제 개념이 처음 고안된 사회경제적 맥락은 전혀 고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의 적용 시기도 신중국 수립 직후까지 소급된다.

29. 최근 황종즈(P. Huang/黄宗智)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후안강 등과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비공식경제의 급속한 팽창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사회경제사를 비공식경제의 팽창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2009; 2010).

소유권자가 국가 또는 집체 기관이 아니며 또한 그 조직의 규모가 소규모임을 가리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여기서 국가는 비공식경제의 공식적인 관리자인 동시에 후원자로 부각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 하에서는, 경찰(公安)과 도시관리원(城管)에 쫓겨 도시를 배회하던(는) 노점상이나 농민공의 열악한 생계 활동의 실상을 비공식경제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3) 규제 중심적 접근

위의 두 시각과 달리, 일부 학자들은 경제 조직의 규모나 업종의 성격과 같은 요소보다는 국가의 규제 여부와 방식을 준거로 중국의 비공식경제 현상을 다루고 있다.³⁰ 청화대학의 리창(李强)이 대표적인 학자로, 그는 다소 모순적일 수도 있는 (Castells와 Portes의) 구조주의적 관점과 (de Soto의)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각각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중국의 비공식경제, 특히 도시농민공의 경제 비공식성에 대한 설명에 적용한다. 리창은 비공식부문/경제를 개념화하기 위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비공식부문’과 ‘비공식취업’을 먼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미등록 경제 조직을 지칭하는 개념인 반면에 후자는 특정 생산 인구의 개별적인 고용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Li, 2003: 126), (상하이) 비공식취업노동조직과 같은 경제 조직에의 취업은 물론 국유기업에 임시직으로 취업한 상태 역시 비공식취업으로 간주한다.

리창은 비공식경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한 정의를 내린다. 국가통계국 부국장이기도 한 그는 2004년 제1차 전국경제조사를 위한 조사원 교육 강연에서 비공식경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비공식경제(불법경제 제외)는 등록되지 않은 경제활동 단위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을 가리킨다(李强, 2004).” 따라서 리창 등에 의하면,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공상국 등 관련 정부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그로 인해 국가 규제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미등록 경제주체들의 활동만이 비공식경제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

30. 李强·唐壮(2002), Li(2003), 李强(2004), 薛德升·黄耿志(2008), 尹晓颖·闫小培·薛德升(2009) 등이 대표적이다.

면, 공상국에 경제 조직으로 등록하고 규제와 보호를 받는 개체호나 사영기업을 비공식부문/경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분류에 해당된다(尹晓颖 외, 2007).

비공식경제를 이렇게 등록과 규제 여부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제 비공식성에 관한 논의에서 규범의 제정자이자 집행자인 국가의 역할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 하에서는,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비공식경제 행위와 국가의 규제/보호 조치에 대해서 비교적 직접적이고 명료한 방식의 가치판단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일부 보수적인 논자들은 비공식경제를 “일체의 무허가(无照) 경제 활동”이라 규정하고 이를 “공식적인(正规) 시장경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일탈적인 행위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단속의 필요성을 역설한다(李宗柏, 2001). 그런가 하면, 리창 등은 비공식부문/경제를 불법 또는 위법경제와 동일시하는 관례적인 견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들에 의하면 (테 소토의 주장과 유사하게) 비공식적 경제 현상들은 무엇보다도 국가가 호구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장벽들을 통해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 결과 생겨나는 것이다(Li, 2003; 李强·唐壮, 2002).

이와 함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애초부터 막혀 있거나 또는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농민공들의 경우, 도시 노동시장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공식적 규범과 절차를 회피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비공식부문에 진입하는 것뿐인데,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농민공과 비공식부문에 대한 사회정치적인 편견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공식적 경제활동과 위법적/불법적 경제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농민공들은 비공식부문에 종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단속과 처벌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다(Li, 2003: 134-135). 최근에는 농민공들이 거주하는 성중촌(城中村)에서 비공식부문이 팽창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방식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생산되고 있다(尹晓颖 외, 2009). 이러한 시각은 국가가 비공식부문/경제를 지원, 장려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앞의 두 입장과 상당히 다르며, 상대적으로 소수 견해에 그치고 있다.

IV. 비공식경제론의 전용과 담론 생산의 정치

1. 중국 비공식경제론의 공통점

앞 장에서 살펴본 세 가지 접근법들은 서로 다른 이론적, 정책적,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서로 다른, 어떤 점에서는 서로 모순적이기도 한 이 시각들은 주로 남미와 아프리카의 다양한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된 영어권 학계의 논의에서 각각의 이론적 전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앞서 요약한 바와 같이, 서구에서의 비공식경제에 대한 논의 또한 경험적 연구 대상 사회의 정치경제적 다양성과 통시적 변화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두 차례에 걸친 ILO의 입장 수정이나 비공식부문/경제 개념과 혼용되고 있는 수많은 유사 개념들이 이를 방증한다. 이론·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른 중국 내의 학자들과 관료들이 급속한 경제 자유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서구의 개념과 입장들을 선택적으로 차용하거나 변용함으로써 중국의 비공식경제에 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한 구도를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에서의 비공식경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가로질러 나타나는 공통점도 발견되는데,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경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이른바 공식·비공식부문/경제 간의 상호 침투 및 연관 관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험적인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구조 개혁으로 인한 압력에 의해 기존 경제 구조 내부에서 비공식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밝혀내고 그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기 시작했지만(薛德升·黄耿志, 2008; 尹晓颖·闫小培·薛德升, 2009), 대부분의 논자들은 여전히 비공식경제를 공식경제와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로를 분리해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제활동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비공식 ‘부문’이라는 개념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사용 관행과 무관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³¹

다음으로, 거의 모든 논자들이 비공식경제와 불법(非法)경제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적 활동을 수반하는 경제 현상과 무보수 가사노동을 비공식경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학계에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의 학계에서도 비공식경제와 범죄(criminal)경제 또는 명백하게 불법적인(overtly illegal) 경제를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는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비공식-불법 간의 구분이 정언적(定言的)으로, 즉 경험적 사실을 참고하여 양자의 관계에 대해 고려하는 과정이 없이 선형적인 범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 하다. 왜냐 하면 실제 경제활동이나 현상을 분석하거나 논할 때에는 ‘비공식’과 ‘불법’ 경제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고 가변적이어서 어떤 행위를 둘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종종 사회적 여건이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비공식경제론의 사회정치적 승인과 그 함의

2000년대 초반부터 비공식경제에 관한 학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비공식경제 담론이 사회정치적으로 승인되어 급속하게 확대재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어떤 배경에서였을까? 무엇보다도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경제적 실재가 급속하게 변화한 데서 기인한다. 1996~2000년의 9-5 기간은, 후안강이 슈페터를 인용하여 ‘창조적인 파괴(创造性的摧毁)’의 시대라 칭한 바와 같이(2002), 중국의 기업구조 개혁과 사회구성 재편의 속도와 범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다. 9-5 기간의 핵심 정책과제였던 국유기업 개혁의 최대 피해자인 실직 노동자들의 숫자는 공식 통계상으로도 1,500만 명

31. 서구 학계에서는 특히 구조주의적 관점이 주목을 끌게 된 1990년대에 걸쳐 비공식부문이라는 용어가 비공식경제, 비공식성, 또는 비공식화 등의 용어로 대체되었다. 비공식부문의 국제전도사 역할을 담당했던 ILO 역시 1999년의 결의를 거쳐 비공식부문 개념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바 있다.

이상에 달했으며,³² 수천만 명의 농촌 노동력이 호구제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진입하여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산업예비군 저수지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게 되었다(이민자, 2007). 이와 동시에, 국가가 제공하던 고용 및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역시 시장의 영역으로 전이됨에 따라 개별 시민들이 국가의 관리 및 보호 영역 외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확연히 증가되었다.

솔린저(Solinger)는 9-5 기간의 이러한 변화가 국가의 자유주의적 정책 전환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한 경제 비공식화(economic informalization by fiat)”라는 말로 요약한다(Solinger, 2002). 서로 긴밀하게 얽혀진 두 가지 과제 — 즉, 국유기업의 지속적인 개혁과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도시 실업 문제 해소 — 를 동시에 다뤄야 했던 중국 정부로서는 사회 복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는 비공식부문/경제의 성장을 방임 또는 지원하는 것은 그저 생각해볼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겨졌을 수 있다(Howell, 2002; Solinger, 2002). 따라서 9-5 기간 동안 급속하게 진행된 경제 비공식화 현상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 의해 기획되고 추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비공식화 과정이 순기능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의 사회경제적 자유화 과정은 대량의 도시 실업 문제 이외에도 부패, 불균형한 지역 발전, 빈부 격차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이에 따라 체제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Chung et al., 2006).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매년 ‘시장경제 질서정돈및규범화(整顿和规范市场经济秩序)’ 캠페인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³³

32. 国家统计局(2001) “‘九五’时期国民经济和社会发展系列分析报告,” <http://www.stats.gov.cn/tjfx/ztfx/jwxlfxbg/index.htm> (2011년 6월 30일 마지막 열람)

33. 2000년 12월 강소성과 절강성을 순방하던 주룽지(朱镕基) 당시 국무원부총리는 경제 질서의 혼란이 사회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에 다다랐으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시장경제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상당수 지식인들은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창에 곧바로 호응하였는데, 후안강과 왕샤오광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³⁴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9-5 기간 중의 급속한 자유화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질서의 약화에서 비롯되었고 이로 인해 부패가 만연함과 동시에 무질서하고 혼란한 불법적인 지하경제가 증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중앙정부의 하달 문건이나 지식인들의 기고문이 이구동성으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막연한 개념으로 남겨져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은 상당한 사회적 공명(共鳴)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무질서, 혼란, 부패 등 대립적인 현상을 기술하는 단어들과 수사(修辭)적으로 병치되어 강조되고 유포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의 이러한 사회 상황은 왜 이 시기에 비공식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식생산의 양상이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단초를 제공한다. 주지하다시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이론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국가의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경제 현상들이 등장했다. 특히, 남순강화 이후 급속하게 팽창한 개체호와 사영 기업은 이미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고 중국경제 성장 과정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정치적 위상은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겨져 있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경제현상은 사회주의적 이념체

2001년 국무원의 제1경제 과제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36개의 관련 부서를 포괄하는 영도소조를 조직하고 그해 4월 「关于整顿和规范市场经济秩序的规定」을 하달한 후 매년 전국적인 규모로 ‘시장경제질서정돈및규범화’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34. 급속한 자유화 과정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고발한 지식인들의 기고문들 중에서도, 특히 왕샤오광, 후안강, 덩위안주 3인이 작성한 “最严重的警告: 经济繁荣背后的社会不稳定”은 매우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王绍光·胡鞍钢·丁元竹 2002). 이 기고문의 주요 내용은 부패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후안강의 이전 글(2001)에 발표된 바 있다.

계와 정치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학술적으로도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³⁵

비공식취업/부문/경제 등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 기술하는 데 학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적합한 개념이었다. 먼저 학술적으로는 약 30년 동안 서구 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된 비공식경제에 대한 논의가 풍부한 이론적 전거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조직의 규모와 속성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ILO의 비공식경제론은 당시 WTO 가입을 전후로 세계적 표준에 민감했던 중국 학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³⁶ 이론의 여지없이, 상하이 시 정부가 먼저 비공식부문이라는 용어를 정책적으로 전용하고 상하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치적인 부담이 사라졌다는 것 또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보다 중요하게는, 비공식경제라는 용어가 공식경제 또는 여전히 빈(empty) 개념으로 남아있는 시장경제질서와 그 대립적 현실인 불법경제 또는 무질서 간의 임계(臨界)적 모순을 매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다. 즉,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든지, 비공식부문/경제 등의 용어는 —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식적(正規)이지는 않지만 동시에 법률적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합법적 또는 불법적(非法)인 것으로 규정할 수도 없는 —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작동하며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경제적 실체를 포괄적으로 외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⁷

-
35. 의문의 여지없이 이러한 필요성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걸맞게 정치적 아젠다를 수정하여 당과 정치체제의 안정적 지속을 도모하고자 했던 당시의 정치 상황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장쩌민(江澤民) 당시 국가 주석이 2001년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립80주년 기념식 강연을 통해 개체화와 사영기업가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나,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이들 “선진세력”을 정치적으로 포용하기 위해 제창된 ‘삼개대표(三个代表)’론이 당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되고 또한 이에 근거하여 이들의 입당이 허용된 것 등이 그것이다. 삼개대표론 및 사영기업가의 체제 내 편입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조영남(2006: 111-116), Dickson(2004) 등을 참조.
36. 중국 비공식경제 전문가 장옌(張彥) 교수와의 면담(2011년 7월 8일, 상해재경대학). 실제로, 2000년대 초중반 비공식경제에 관한 대부분의 논문들은 ILO의 논의를 중국 상황에 맞게 변형한 규모 중심적 접근법에 입각한 것들이다.
37.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내 세 가지 접근법이 서로 다른 서구의 논의를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조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공통적으로 비공식경제를 공식

이렇듯, 2000년대 초반 이래 중국에서 비공식경제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단지 그 개념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학술적인 유용성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공식경제의 현실적인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고 불법/지하경제가 날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어 있는 개념이자 공허한 구호로서만 작동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질서’와 체제에 위협적인 현실적 실재로서의 각종 사회경제적 무질서 간의 간극을 매개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유용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의 비공식경제 담론에 내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주류 입장이라 할 수 있는 ‘규모 중심적 접근법’에서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공식경제 및 불법경제와의 대립적 병치를 통해서 구현된다.

먼저, 비공식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심지어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여겨지게 된다. 비록 개체호와 사영기업이 이미 법률적,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긴 했지만, 사회주의적 이념체계 하에서 근간이 되는 국유 및 집체기업과 외자기업 등의 공식경제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부차적인 경제형태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GDP 성장의 3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시와 농촌의 실업인구와 ‘잉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즉, 비공식경제를 이렇게 규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공식경제와 동등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사회정치적으로 장려되거나 또는 최소한 묵인될 만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래의 경제자유화 정책을 학술적 용어를 빌어 간접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현 단계 중국에서 사용되는 비공식경제 개념은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선택적 개입을 정당화 하는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비공식경제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무질서,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곤 하는 불법 또는 지하경제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사

경제와 불법 혹은 지하/흑색(地下/黑色)경제와 서로 중첩되지 않는 영역으로 정연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회정치적 승인은 후자에 대한 국가 규제의 필요성과 단속 활동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각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공식경제라는 범주는 사회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제행위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구분하게 하는 임계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경제적 과정에서 비공식과 불법의 경계는 지극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서로 중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질서라는 공허한 개념에 의해 지탱되는 이러한 범주적 구분은 실제 법률 집행 과정에서는 정부 기관 및 관료들의 해석과 재량에 의해 대체되기 마련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비공식경제는, 그에 대한 사회정치적 승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의 선택적 개입과 효과적인 통제 범위의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⁸

공식경제 및 불법경제와의 대비를 통해 중국 내 주류 학자들에 의해 범주화된 비공식부문/경제 개념은 학술적 용어를 넘어 이제는 대중매체를 통해 일상적 용어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 이에 관한 지식과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대재생산 되는 과정에서 당-국가는 기층 인민의 보호자이자 시장경제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를 재생산할 수 있다. 당-국가는 한편으로 주변적인 지위에 있는 인민들이 종사하는 비공식부문을 장려, 지원,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적이고 부패한 사회경제적 현상을 척결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주체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학술적 이론체계인 비공식경제론이 이렇게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니는 사회정치적 담론의 형태로 재구성되는 것은 체제전환기 중국의 지식생산 기제가 지니는 특징적인 단면의 하나라 할 수 있다.

38. 예를 들어, Chang이 분석한 바와 같이(2009: Chapter 3), 삼륜인력거를 활용한 북경 중관촌에서의 물류 운송업은 적절한 등록 절차를 마친 비공식경제 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도시 미관(市容)을 해친다는 이유로 도시 관리원(城管)들의 선택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V. 맺음말

비공식부문/경제 개념이 창안되어 사용된 지 어언 40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 개념 또는 공식-비공식의 이분법적 틀이 사회경제적 현실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얼마나 적합하고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서로 다른 방식의 개념화, 그리고 수많은 대안적 개념들 및 유사 개념들과의 복잡한 분류 관계는 이 개념이 과연 학문적 소통의 매개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가 들게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 중의 하나는 비공식부문/경제 개념으로 지시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이나 과정이 실제적인 것처럼 이 개념이 여전히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비공식경제 개념이 경제 현상 및 관행에 대한 국가의 규제 범위와 개입 양상을 진단해볼 수 있는 징후발견적인(heuristic)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한다면, 특정한 이론적 입장을 취하거나 혹은 이 개념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개념을 고안하는 것과 별도로, 비공식경제에 관한 논의가 재생산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보다 넓은 사회정치적 맥락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학술적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사회정치적 여건에 의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국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비공식’라는 단어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함의로 인해 중국에서 금기시되던 비공식부문 개념은 아이러니하게도 상하이 시 정부의 실험적인 시도를 계기로 중국 학계에 도입되었다. 이 개념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회정치적 승인을 받은 후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중국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체계화되었다. 비공식부문/경제 개념이 사회정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것으로 지칭되는 경제 영역이 방대한 숫자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1990년대의 급속한 경제자유화 과정에서 생겨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완충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학술적 지식,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비공식경제론은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또 다른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즉, 현대 중국 지식계에서 이 개념은 그 자체로 불법 및 지하경제와의 절대적인 구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개념이 주변적 위치에 있는 인민들에 대한 보호자이자 불법적 현상에 대한 단속자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학술적 지식체계인 비공식경제론이 이렇게 이데올로기적 효용성을 지닐 수도 있게 된 것은 ‘비공식’이라는 단어가 역설적이게도 국가에 의한 관리와 보호라는 의미를 함축하게 된 체제전환기 중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중국의 비공식경제에 관한 논의 역시 중층적인 의미에서 ‘중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확실히 개념으로서의 ‘비공식경제’는 현실에 대한 이론화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구성물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러한 개념적 구성물로 현실을 설명하고 재현하는 과정 역시 현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비공식경제와 관련된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특정 논자의 관점을 차용하기에 앞서, 그 개념 사용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1-07-25 심사일자: 2011-08-22 게재확정: 2011-09-15

참고문헌

- 이민자. 2007. 『중국 호구제도와 인구가동』. 서울: 폴리테이아.
- 장호준. 2011. 「중관촌 모델과 비공식 신용거래 관행」. 『현대중국연구』 제12집 2호. 현대중국학회. pp. 83-125.
- 조영남. 2006.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서울: 나남출판.
- 葛伟·钱聪慧. 2005. 「关于新形势下非正规就业问题的研究与思考」. 『中国劳动关系学院学报』 1期. pp. 18-24.
- 刘社建. 2007. 「非正规就业的主要模式及未来发展方向」. 『经济体制改革』 2期. pp. 12-15.
- 刘学平·刘丹. 2006. 「非正规就业: 下岗职工的另一选择」. 『长江论坛』 1期. pp.

66-69.

- 李强. 2004. 「第一次全国经济普查领导小组办公室副主任, 国家统计局总统计师李强同志在第一次全国经济普查培训工作会议上的讲话」. 昆明: 国家统计局.
- 李强·唐壮. 2002. 「城市农民工与城市中的非正规就业」. 『社会学研究』 6期. pp. 13-25.
- 李桂铭. 2006. 「我国非正规就业状况分析」. 『合作经济与科技』 1期. pp. 27-29.
- 李宗柏. 2001. 「通过地方立法, 制止无照经营」. 『工商行政管理』 5期. pp. 24-25.
- 李振峰. 2007. 「非正规就业“上海模式”发展研究」. 『工会理论研究』 6期. pp. 34-36.
- 宋秀坤·黄扬飞. 2001. 「非正规经济与上海市非正规就业初探」. 『城市问题』 2期. pp. 39-42.
- 斯克雷普尼克 H.B. 1995. 「非正规经济部门的就业: 发展中国家的经验」. 『国外财经』 4期. pp. 70-78.
- 薛德升·黄耿志. 2008. 「管制之外的“管制”: 城中村非正规部门的空间集聚与生存状态—以广州市下渡村为例」. 『地理研究』 6期. pp. 1390-1399.
- 吴复民·姜微. 2001. 「上海80万人再就业」. 『经济世界』 10期. pp. 10-12.
- 王绍光·胡鞍钢·丁元竹. 2002. 「经济繁荣背后的社会不稳定」. 『战略与管理』 3期. pp. 26-33.
- 姚宇. 2007. 「非正规现象其积极意义」.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学报』 6期(总162期). pp. 12-18.
- 王永兴·景维民. 2010. 「中国非正规经济规模的实证研究」. 『统计研究』 11期. pp. 17-23.
- 尹继佐(主编). 2001. 『体制改革与社会转型: 2001年上海社会发展蓝皮书』. 上海: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 尹晓颖·闫小培·薛德升. 2007. 「国外非正规部门相关概念辨析及启示」. 『世界地理研究』 16卷(1期). pp. 21-26.
- 尹晓颖·闫小培·薛德升. 2009. 「快速城市化地区“城中村”非正规部门与“城中村”改造: 深圳市蔡屋围、渔民村的案例研究」. 『现代城市研究』 3期. pp. 44-53.
- 尹晓颖·闫小培·薛德升. 2010. 「国外非正规部门研究进展」. 『地理科学进展』 29卷(12期). pp. 1479-1489.
- 任远. 2008. 「完善非正规就业上海模式的思考」. 『社会科学』 1期. pp. 119-124.
- 张丽宾. 2004. 「“非正规就业”概念辨析与政策探讨」. 『经济研究参考』 81期. pp. 38-43.
- 张彦. 2008. 「非正规就业: 理论层面上的社会承认」. 『上海财经大学学报』 5期. pp. 18-24.
- 丁金宏·冷熙亮·宋秀坤·B. Hammer·徐月虎. 2001. 「中国对非正规就业概念的移植与发展」. 『中国人口科学』 6期. pp. 8-15.
- 陈荣林. 2006. 「“灵活就业”与“非正规就业”的比较思考」. 『工会理论研究』 6期. pp. 32-33.
- 祝均一. 2004. 「非正规就业“上海模式”的探索与发展(摘要)」. 『中国就业』 6期. pp. 18-19.

- 彭希哲·姚宇. 2004. 「厘清非正规就业概念, 推动非正规就业发展」. 『社会科学』 7期. pp. 63-72.
- 胡鞍钢. 2001. 「中国90年代后半期腐败造成的经济损失」. 『国际经济评论』 5/6期. pp. 12-21.
- 胡鞍钢. 2002. 「“创造性的摧毁”引发中国下岗洪水」. 『领导决策信息』 18期: 26.
- 胡鞍钢·杨韵新. 2001. 「就业模式转变: 从正规化到非正规化」. 『管理世界』 2期. pp. 69-78.
- 胡鞍钢·赵黎. 2006. 「我国转型期城镇非正规就业与非正规经济(1990-2004)」. 『清华大学学报』 21(3). pp. 111-119.
- 黄宗智. 2010. 「中国发展经验的理论与实用含义: 非正规经济实践」. 『开放时代』 10期. pp. 133-158.
- Bangasser, Paul E. 2000. “The ILO and the Informal Sector: An Institutional History.” A Report to ILO. Geneva: ILO.
- Bruun, Ole. 1993. *Business and Bureaucracy in a Chinese City: An Ethnography of Private Business Households in Contemporary China*. Berkeley: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 Byrd, William A. 1987. “The Impact of the Two-tier Plan/Market System in Chinese Industr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1(3). pp. 295-308.
- Castells, Manuel and Alejandro Portes. 1989. “World Underneath: The Origins, Dynamics, and Effects of the Informal Economy.” *The Informal Economy: Studies in Advanced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A. Portes, M. Castells, and L. A. Benton (eds). pp. 11-37.
- Chan, Anita, and Jonathan Unger. 1982. “Grey and Black: The Hidden Economy of Rural China.” *Pacific Affairs* 55(3), Autumn. pp. 452-471.
- Chan, Anita, Richard Madsen, and Jonathan Unger. 1992. *Chen Village under Mao and De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ang, Ho-jun. 2009. “Markets Hidden on Thoroughfares: The social construction of economic informality/illegality in Beijing’s Zhongguancun, China.” Ph.D. Dissertation in Anthropology, Columbia University.
- Chung, Jae Ho, Hongyi Lai, and Ming Xia. 2006. “Mounting Challenges to Governance in China: Surveying Collective Protestors, Religious Sects, and Criminal Organizations.” *China Journal*, July. pp. 1-32.
- Crichlow, Michaeline. 1998. “Reconsidering the ‘Informal Economy’ Divide: State, Capitalism, and Struggle in Trinidad and Tobago.” *Latin American Perspectives* 99(25), March. pp. 62-83.
- Davin, Delia. 1999. *Internal Migration in Contemporary China*. New York: St. Martin’s Press.
- De Soto, Hernando. 1989. *The Other Path: The Invisible Revolution in the Third World*. J. Abbott (trans). New York: Harper and Row.
- De Soto, Hernando. 2001. “Dead Capital and the Poor.” *SAIS Review* 21(1). pp.

13-44.

- Demurger, Sylvie *et al.* 2006. "Economic Liberalization with Rising Segmentation in China's Urban." *Asian Economic Papers* 5(3). pp. 58-103.
- Dickson, Bruce J. 2004. "Dilemma of Party Adaptation: The CCP's strategies for survival." *State and Society in 21st-century China: Crisis, Contention, and Legitimation*. P. Hays and S. Rosen (eds). pp. 141-158.
- Feige, Edgar L. 1989. *The Underground Economies: Tax Evasion and Information Distor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ige, Edgar L. 1990. "Defining and Estimating Underground and Informal Economies: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pproach." *World Development* 18(7). pp. 989-1002.
- Feng, Langrui. 1988. "Youth Unemployment in China."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16. pp. 285-296.
- Fleming, Matew H., John Roman, and Graham Farrell. 2000. "The Shadow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3(2), Spring. pp. 387-409.
- Hart, Keith. 1973. "Informal income opportunities and urban employment in Ghan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11(3). pp. 61-89.
- Hart, Keith. 2005. *The Hit Man's Dilemma: Or Business, Personal and Imperson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t, Keith. 2006. "Bureaucratic form and the informal economy." in B. Guha-Khasnobis, R. Kanbur and E. Ostrom. eds. *Linking the Formal and Informal Economy: Concepts and Policies*. Oxford University Press. pp. 21-35.
- Howell, Jude. 2002. "Good Practice Study in Shanghai on Employment Services for the Informal Economy." *A Report to ILO*. Geneva: ILO.
- Hu, An Gang. 2001. "China's Employment Problems: Analysis and Solutions." *World Economy & China* 2001(1). pp. 11-17.
- Huang, Philip C. 2009. "China's Neglected Informal Economy: Reality and Theory." *Modern China* 35(4). pp. 405-438.
- ICLS. 1993.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 The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ILO.
- ILO. 1972. "Employment, Incomes and Equality: A Strategy for Increasing Productive Employment in Kenya." Geneva: ILO.
- ILO. 1991a. "The Dilemma of the Informal Sector: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78th Session.
- ILO. 1991b. "Reply of the Director-General to the Discussion of His Report." Record of Proceeding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78th Session.
- ILO. 1999. "Decent Work: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The 87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Geneva: ILO.
- Jefferson, Gary, and Thomas Rawski. 1992.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and

- Employment Policy in China's Cities." *Modern China* 18(1). pp.42-71.
- Li, Qiang. 2003. "Policy Issues Concerning the Informal Employment of Rural- Urban Migrants in China." *Social Sciences in China*, Winter. pp.126-137.
- Loayza, N. V. 1997. "The Economics of the Informal Sector: A Simple Model and Some Empirical Evidence from Latin America." World Bank Report No. 20433.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Lomnitz, Larissa. 1988. "Informal Exchange Networks in Formal Systems: A Theoretical Model." *American Anthropologist* 90(1). pp.42-55.
- Portes, Alejandro, and Miguel Angel Centeno. 2006. "The informal economy in the shadow of the state." in Fernández-Kelly and J. Shefner. eds. *Out of the shadows*.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p. 23-48.
- Portes, Alejandro, and Richard Schauffler. 1993. "Competing Perspectives on the Latin American Informal Sect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1). pp. 33-60.
- Potter, Sulamith H. and Jack M. Potter. 1990. *China's Peasants: The Anthropology of a Revolu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terman, Louis. 1992. "Dualism and Reform in Chin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0(3). pp.467-493.
- Quijano, Anibal. 2000. "The Growing Significance of Reciprocity from Below: Marginality and Informality under Debate." in F. Tabak and M. A. Crichlow. eds. *Informalization: Process and Structur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133-165.
- Sampson, Steven L. 1987. "The Second Economy of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93(1). pp.120-136.
- Sassen, Saskia. 1994. "The Informal Economy: Between New Developments and Old Regulations." *The Yale Law Journal* 103(8). pp.2289-2304.
- Sassen, Saskia. 1998.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The New Press.
- Sassen, Saskia. 200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neider, Friedrich and Dominik Enste. 2000.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Size, Causes, and Consequences." IMF Working Paper.
- Solinger, Dorothy. 1999. *Contesting Citizenship in Urban China: Peasant Migrants, the State, and the Logic of the Marke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olinger, Dorothy. 2002. "Economic Informalization by Fiat: China's New Growth Strategy as Solution or Crisis?" *On the Roots of Growth and Crisis: Capitalism, State and Society in East Asia*. Rome: Annali Della Fondazione Giangiacomo Feltrinelli. pp.373-417.

- Stark, David. 1989. "Bureaucratization and Informalization in Capitalism and Socialism." *Sociological Forum* 4(4). pp. 637-664.
- Stepick, Alex. 1989. "Miami's Two Informal Sectors." in Portes, Alejandro, M. Castells and L. Benton. eds. *The Informal Economy: Studies in Advanced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pp. 111-134.
- Tabak, Faruk and Michaeline A. Crichlow. 2000. *Informalization: Process and Structur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UN (United Nations). 2003. "Non-Observed Economy in National Accounts: Survey of National Practices." Geneva: UN.
- Whyte, Martin K. and William L. Parish. 1984. *Urban Life in Contemporary Chin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ang, Dali L. 2002. "China in 2001: Economic Liberalization and Its Political Discontents." *Asian Survey* 42(1). pp. 14-28.
- Young, Susan. 1995. *Private Busines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Armonk, NY: M.E. Sharpe.
- Zafanelli, Wojtek. 1985. "A Brief Outline of China's Second Economy." *Asian Survey* 25(7). pp. 715-736.
- Zhang, Li. 2001. *Stranger in the City: Reconfigurations of Space, Power, and Social Networks Within China's Floating Popul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Theorizations of Informal Economy and its Socio-Political Implications in Post-Reform China

Chang, Ho-Jun

HK Research Professor, University of Incheon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orizations regarding the informal sector/economy, a vogue concept in current Chinese academia, and explores the socio-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dissemination and reproduction of such discourses. First, this article reviews the evolutionary trajectory of major strands of informal economy theory upheld by western scholars, which Chinese scholars draw upon in formulating their differing views. Second, it examines the way two dimensions of informal economy, one as a socioeconomic reality and the other as a theoretical concept, have developed separately in China. The term informal economy, which had previously been avoided because of its negative political connotations, began to be used by Chinese officials as the Shanghai municipal government actively promoted informal sector jobs for those out of work. Third, this article analyzes points of agreement and contention amongst domestic scholars with diverse views, and examines how the concept operates as not simply a theoretical tool but also as an ideological framework through which to interpret the changes in socio-economic realities resulted from the economic liberalization policies. China's scholars and policy advisors have shifted representational discourses regarding the informal economy away from notions of illegality and being 'underground' to inclusively defining it as an integral component in relation to the success of private enterprises and individual business households, which have become an indispensable part of national economy. The concept imported from the west, thus, functions as an ideological category through which the state can create arbitrary distinctions between acceptable and non-acceptable forms of economic practices and phenomena.

Key Words: China, economic liberalization, informal economy/sector, informal employment labor organization, market economic order, (re)production of discourse

장호준.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7-46, 인천대학교 미래관 105호
Tel_010 9192 9588
E-mail_hihojun@gmail.com

